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1시 30분)입니다. 모임 후 사업보고서와 신입원명단을 사무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찬양대가 주관하는 '찬양의 가을걷이'가 오늘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필리핀 태풍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현금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이봉배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정영례 성도의 남편 김용웅 씨가 15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한 주간 동안 구제와 나눔에 힘쓰십시오.

사 65:17~25 / 사 12
살후 3:6~13 / 눅 2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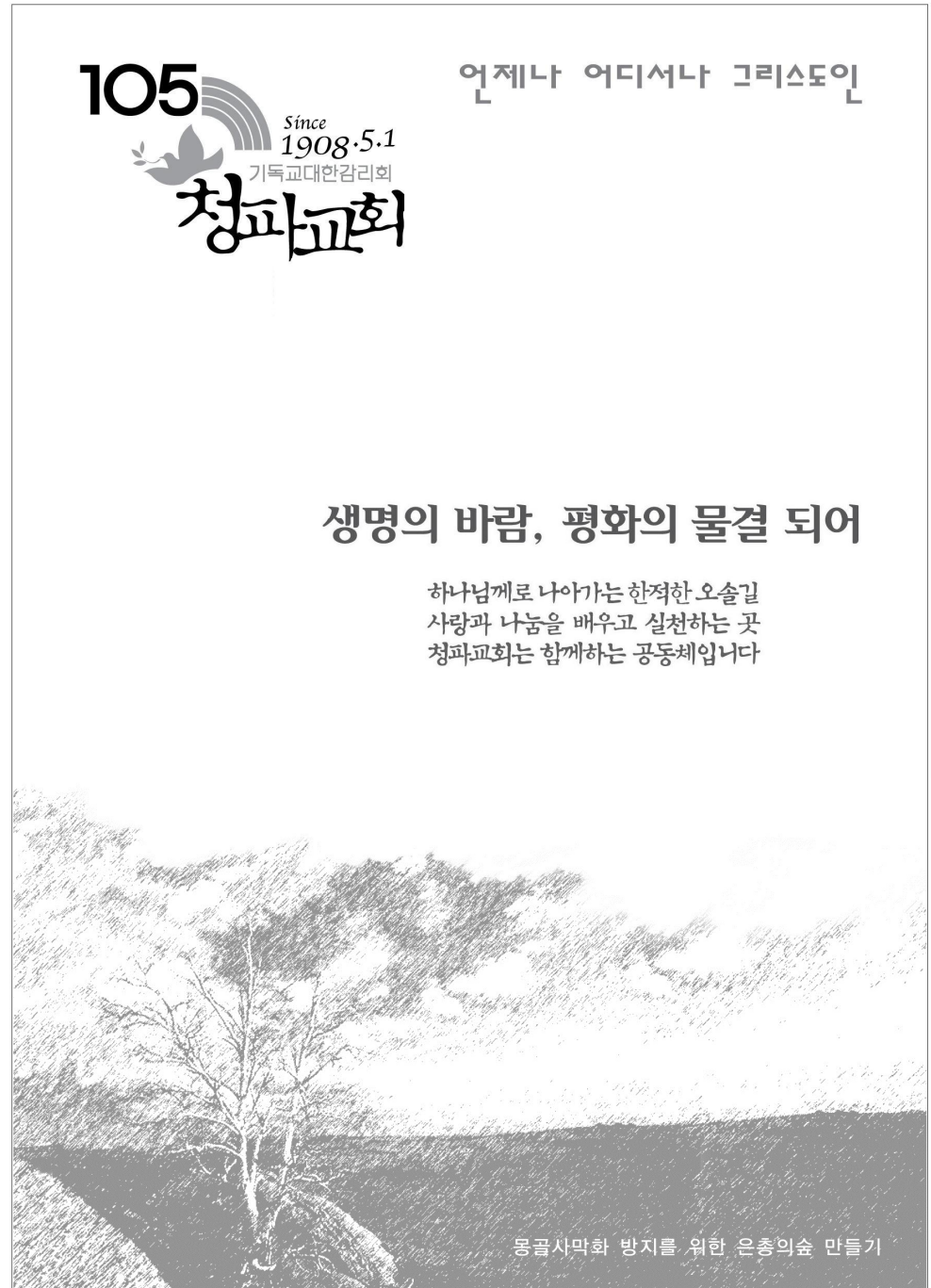
고후 3:1-6
----------

식 당 봉 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종  
 다음 주 식당봉사: 장혜숙 박성실 심상숙 정현선 오자영 최영혜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 두란노1속 김종락 박영신  
 다음 주 설거지 : 5여선교회 류준모 심호선  
 떡 커 피 대 접 : 유혜경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섭게 몰아닥친 강풍에 가족과 집과 안정된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통과 슬픔 가득한 폐허 위에 이제는 위로와 돌봄과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온갖 우상을 좇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을 신격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념을 절대화하여 사람을 이념의 노예로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생명과 진리의 주님만을 경배하며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명자 김남종 오복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정은  
 김정훈 이진영 김종철 고영애 김철수 유영남 박시내 박윤숙 박창운  
 허정윤 서정순 윤주원 최윤선 이수정 이재문 임주빈 최현옥 장근성  
 박희순 장영숙 정우선 정현모 조현권 박아영 허호범 박성실

### 감사헌금

권미숙 박옥순 정현선 최미자 무명13

### 생일감사헌금

임승동

### 녹색꿈헌금

김경혜 김인석 김향자 박호규 강영님 시시권 백경임 이광석 이선화  
 최희영 무명3

장혜숙	백혜숙	송임희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노순옥
김재흥	최경미	최경미	이은옥
장영숙	신영신	김명순	김진경
정경례	진정숙	문금석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권미숙	박미영	배삼순	박미영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윤수진	윤수진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김정현
정영선	서정순	송양진	정영선
박혜경	조향미	송조향	백영성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 곡비(哭婢)

- 문정희

사시사철 엉덩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례 엄마는  
 곡(哭)을 팔고 다니는 곡비(哭婢)였다/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 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 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哭) 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 우는  
 옥례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 매달아 놓았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엉덩퀴 같은 옥례야, 우리 시인의 딸아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 깨쳐야 하리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삶에 지치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위로받기만을 원할 뿐 그 누군가의 위로가 되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고통 속에 있는 이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총회)	오펜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양상철 선생 민병배 집사

11	영접위원	한상익 홍순구 조문규 심상숙 안홍숙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 알지 못함

상업화된 과학과 그로 인한 과학의 지나친 단순화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이 불만을 표명했다. 나는 이들의 불만이 충분히 제 소리를 내고 더욱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 바라건대, 이 과학자들이 그저 이론적, 기술적 차원의 '수정'을 위한 노력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세계를 연구하고 사용하는 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는 데까지 밀고나갔으면 한다.

<리어왕>에서 글로스터 백작은 왕에게 충성을 바친 댓가로 눈이 멀게 되고, 그러한 운명을 겪으면서 그는 일종의 정의를 깨닫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눈이 보일 적에 나는 오히려 헛디더 넘어지곤 했다." 글로스터 백작은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포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자살만이 생명을 포기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우리는 알고도, 또 모르고도, 생명체들과 유사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우리는 삶을 "안다고" 착각함으로써 인해, 다시 말해 우리의 이해의 범주로 삶을 환원시키고, 생명을 예측하거나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한 듯이 행동함으로써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위험성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환원주의 과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의 모든 부분을 기계로 보는 데 있다. 이것은 피조물과 공업생산물 사이에, 탄생과 제조 사이에, 생각과 전산화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를 생화학적 체계로 취급할 때마다 그것들은 생화학적 체계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를 읽은 적이 있다. 삶을 기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결국 삶을 축소시키고 물질로 환원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삶을 변화와 구원의 영역 밖으로 내모는 것이고, 절망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장기를 얻기 위한 태아복제와 삶을 연장하기 위한 이 밖의 극단적인 방

법들도 똑같은 한계와 퇴행적 측면을 지닌다. 개체로서의 삶은 어떤 것도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다. 온전한 삶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계승에 온전히 참여하고, 삶만이 아니라 죽음에도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내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이며, 동시에 있는 그대로 삶을 기뻐하는 것이다. 고통 받으면서, 또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을 이해했다는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 생명이 소유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생명은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지만, 우리 너머에 있다.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생명에게,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만들 수는 없다. 생명은 통제될 수 없다. 생명에 대한 통제는 환원주의와 함께 엄청난 파괴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해방 선언이 필요하다. 특정한 인종이나 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해방 선언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불완전한 지식을 오만하고 위험한 행동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문화적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적인 학문 자체가 가공할 위험이 될 것이다.

물론 내가 지금 과학이나 그 외 다른 지적 학문분야의 폐기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기준과 목적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행동의 기준은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의 성격에 근거해야 한다. 무게중심을 생산성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적응성에, 기술혁신이 아니라 친밀성에, 힘이 아니라 우아함에, 비용이 아니라 검소함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규모와 의도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다시 우리는 절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